

일제강점기 복서(Boxer) 황을수의 LA올림픽 출전에 대한 연구

임석원(대림대학교 강사) · 조문기*(일가재단 책임연구원)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민족 ‘최초의 올림픽인’인 복서 황을수의 업적을 고증하고, 아울러 그의 행적을 통해 한국 올림픽 경기사의 초기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발행된 신문을 주요 사료(史料)로 채택 하였으며, 특히, 1932년 LA올림픽 개최 당시 황을수가 작성한 기행문을 심층 분석하였다. 황을수는 한민족이 최초로 참가한 근대 올림픽의 복싱경기에 출전하였다. 비록 그 성과가 순위 입상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일제강점기 ‘압제와 차별’이라는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식민치하 약소 민족의 역량을 세계 만방에 선보였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의 길이는 찰라(刹那)이지만 깊이는 심히 장중(莊重)하다. 아울러, 이러한 황을수의 행적은 광복이후 ‘KOREA’가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국으로서의 위용을 갖추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복서, 황을수, 일제강점기, 제10회 올림픽, 올림픽 경기사

* ultrajo74@naver.com

I. 서 론

“올림픽대회는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유산이다.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근대 올림픽대회는 서서히 성장하여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이벤트 중 하나(하남길, 2011 : 511)”로 평가되고 있는 인류의 제전으로서 그 의미 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은 인류 최고의 대회이지만 그러한 올림픽도 초기에는 고대그리스 이후 긴 휴지(休止) 끝에 재개되었기에 그 위상이 크긴 하여도 지금과 같지 않았다¹⁾. 그러하기에 근대올림픽에 초반인 1932년 제10회 LA올림픽²⁾ 참가의 의미는 개척기에 참가란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

본 고의 대상은 1932년 LA올림픽의 모습을 일제강점기 韓민족 최고의 권투선수 중 한명으로 평가받았던 황을수의 서신을 중심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1932년 LA올림픽은 한민족이 민족은 있으나 국가가 없던 시기에 최초로 참가한 올림픽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며 황을수 역시 한민족 무예인 중 최초³⁾로

1) 1894년 고대 올림픽의 부활이 결정되었으나 짧은 준비 기간 동안에 첫 대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당시 총회의 결정 사항은 1896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하고, 4년마다 세계 각국이 순회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초기의 올림픽은 경험의 부족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세계박람회 부속 행사로 전락했으나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부터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제6회 올림픽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열리지 못하는 굴곡을 겪었으며, 1936년 베를린대회까지는 주로 미국의 독주 상태 속에 올림픽은 인류의 스포츠 및 문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갔다(하남길, 2011 : 517).

2) 대공황으로 인해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를 준비하던 미국은 난관에 봉착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여비문제로 인해 올림픽 참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하남길 외 공저, 2008 : 244).

3) 1932년 제10회 LA올림픽은 한국인으로 처녀 출장하는 올림픽이었다. 비록 황을수의 가슴에는 태극 마크가 아닌 일장기가 달려 있었지만... 황을수는 일본 라이트급 대표 선수로 출전, 예선에서 독일의 칼과 대전한다. ‘위대한 화이터’라는 명성에 걸맞게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황을수는 예리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상대를 위협했다. 그러나 3라운드는 급속한 체력저하로 올림픽의 높은 문을 넘지 못하고 판정패로 물러났다. 한국인이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종목은 1932년 제 10회 LA올림픽 복싱과 마

올림픽에 출전한 것이기에 그때의 활약에 대한 이해를 석금(昔今)에 있어 갖게 하는 것의 필요성은 이견 없이 담보된다 할 것이다.

황을수와 1932년 제10회 LA올림픽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황을수를 주제로 선정하여 전개된 연구는 임석원, 조문기(2017)의 「일제강점기 황을수의 권투활동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며, 후자를 중심 주제로 삼은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논자가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의 범위는 황을수의 권투 활동을 중심으로 본 1932년 제10회 LA올림픽의 모습이다. 전술된 내용처럼 황을수에 관련된 연구는 임석원, 조문기(2017)에 의해 진행된 것이 있으나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 1932년 제10회 LA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은 부족하여 논자는 본고에서 거기에 一步를 하려한다.

이상과 같은 주제를 논구하여 논자가 얻고자 목적하는 것은 한민족 최초로 참가한 올림픽의 모습과 그 대회에서 황을수의 활약을 구체화하여 문헌화하는 것에 있다. 더하여 그러한 문헌자료를 한국체육학 무예분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의의임을 밝힌다. 그 목적과 의의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문, 잡지, 논문, 단행본 등을 사용한 문헌 고찰로 연구를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본론으로 들어간다.

II. 본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의 연구 대상을 觀하는 兩眼 중 먼저 황을수 이력의 대략(大略)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다.

황을수를 취재한 자료로 그의 기초 약력이 잘 들어나 있다. 황을수는 1908년 철원 출생으로 서울 휘문고보에서 수학하다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YMCA에서 영어

라톤(김은배, 권태하)부문이었다(노병엽, 이익순, 1997 : 729).

를 배우다 도일하여 일진영어학교를 거쳐 명치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는 명치대학 유학시절 권투에 입문하게 되는데 그가 권투에 입문하기 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중략…일본 명치대 재학 시절 일본권투의 창시자로 인식되며 조선 무도인들에게 영향을 상당부분 주었던 ‘와타나베시지로’에게 권투를 사사받았다. 이는 황을수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권투 양성의 양대 축이었던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YMCA와 일본 유학생 계열 중 후자에 속함을 알게 해준다(임석원, 조문기, 2017 : 4-6).

황을수가 활동하던 시기에 조선민족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였기 때문에 조선민족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 수가 없었다. 때문에 조선 민족의 자존감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으나 스포츠 분야에서 발군의 행보를 보인 몇몇 스포츠 엘리트들이 위안이 되어주었으며, 본고에서 천착한 황을수도 그 중 하나이다. 그는 조선인 최초로 비록 태극기를 패용하지는 못하였지만 올림픽에 출전하였고, 민족적 차별이 심하던 시기에 일본인들에 위에서 서서 “比島에서 열니엇는 극동대회에는 전 일본 권투감독으로 다녀온(편집부, 1935 : 170)” 이력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선권투의 내일을 위하여 경성 종로구 수표동에 최신식 시설의 동양권투회관을 건립하였으니 황을수의 권투가로서의 업적은 선수와 지도자를 아울러 훌륭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해방이후 월북하였던 점은 그가 보인 큰 업적을 바래는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임석원, 조문기, 2017 : 12).

다음으로 1932년 제10회 LA올림픽의 대락을 살펴본다.

대공황으로 인해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를 준비하던 미국은 난관에 봉착했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여비문제로 인해 올림픽 참가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림픽이 개막되자 남부 캘리포니아의 이상적인 기후조건 속에서 열광적인 팬들이 등장하여 참가한 선수들에게 열렬한 환영의 박수와 격려를 보였으며, 역대 올림픽과 비교할 때 가장 웅장한 스포츠 축제가 펼쳐졌다. 10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콜로세움은 인파로 가득 찼고, 선수와 심판 팬들의 상호 협조로 최상의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대회였다(하남길 외 공저, 2008 : 24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는 그 이전에 비하여 가장 웅장한 스포츠 축제였다.

10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콜로세움은 올림픽 기간 동안 관중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복싱, 레슬링, 수영, 테니스, 조정 등의 경기장을 새롭게 건립하였으며, 올림픽 선수촌을 건립하여 남자 선수들을 수용하고, 여자 선수들은 호텔에 투숙 하도록 했다(하남길, 2011 : 527).

국권이 피탈되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기였던 일제강점기는 한민족에게 있어 매우 힘든 시기였다. 그 고난은 체육계에도 예외는 아니었으니 다양한 차별이 있었다. 그러나 본고가 고찰하는 1932년은 일제의 한반도 통치 3단계⁴⁾ 중 문화통치⁵⁾(1920~1937)에 해당하는 시기이기에 엄혹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태극기를 들고 나갈 수는 없었지만 한민족의 올림픽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올림픽 개막 1년 전인 1931년 동아일보는 일본의 올림픽 선수단 파견의 규모를 “選手百八十名에 經費는 約二十五萬圓”이라고 1931년 4월 4일 2면을 통해 보도하였다. 180명 중 한민족 선수는 총 3명, 마라톤에 김은배, 권태하 복싱에 본고의 대상인 황을수로 적은 숫자였지만 일제에 의해 차별받던 시기였기에 그 의미는 작지 않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황을수가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보도록 한다.

4)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의 정책단계는 무단통치기(1910~1919), 문화통치기(1919~1937), 민족말살기(1937~1945)로 나누어진다. 본고는 그 중 중간 시기인 문화통치기를 중심으로 놓고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문화통치는 대개 1919년 3.1독립운동 이후부터 1937년 중일전쟁의 시작을 끝으로 약 18년간 운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조문기, 임석원, 2009 : 82-83).

5) “1920년대는 이른바 일제의 문화통치가 시작되던 해였다. 문화통치는 일제의 공포통치인 무단통치 이후 실시한 통치체제이다. 일제는 초기 헌병경찰 제도를 통한 강압적 방식으로 조선민족을 억압하고 동양척식회사를 이용해 토지 측량을 빙자한 토지 강탈을 실시하는 등의 공포정치로서 한반도를 경영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나 1919년에 폭발한 3.1운동을 직면하게 되고 조선식민정책에 있어 더 이상 강압적 방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강압적 방식의 식민정책 수정의 필요성을 통감한 일제는 통치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증강시킨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었고 조선 민족의 불만을 해소 및 진정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게(임석원, 김대한, 2014 : 3)” 된다.

東京特信 四月廿五日 京日比谷 市政講堂에서 舉行한 世界올림픽 準備拳闘大會에 東京留學生武道會 拳闘部에서는 라이트級 黃乙秀君을 出戰시킨바 北海道名古屋 其他各地에서 雲集한 選手三十九名中에서 또 優勝하였다. 黃君의 相對는 日本拳闘界의 거성인 道장으로 三會戰을 繼續한바 黃君은 練習不充分함에도不拘하고 堂堂히 優勝하였다(편집부, 1931. 5. 5 : 7).

황을수는 “京日比谷 市政講堂” 즉 일본의 수도인 동경 지요다구 히비야에 위치한 시정강당에서 31년 4월 25일에 거행된 올림픽 예선전에 한민족으로 구성된 동경유학생무도회⁶⁾ 권투부 라이트급 대표로 출전하여 ‘北海道名古屋’ 즉 일본의 4개(북해도, 혼슈, 시코쿠, 규슈)섬 중 최북단 북해도부터 나고야까지 일본 각지에서 출전한 39명의 선수 중 우승을 차지하고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었다고 한다.

황을수의 올림픽 출전 확정과 더불어 LA와 日本도 올림픽 시설 및 渡美를 위한 선편 준비 등으로 대회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나간다. 본격적인 황을수의 올림픽에서의 활약을 그리기에 앞서 잠시 그 모습을 엿보도록 한다.

올림픽村落의 周圍는 二마일에 不過하나 村內의 設備는 果然 米國의 黃金國인 것과 現代科學의 發達을 자랑한다. …중략…풍경의 아름다움은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出入口의 左右便에는 電話交換所와 電信局이 臨時로 나란이있다. 郵便所, 質疑問部, 洗濯所, 加注第一銀行, 雜貨商, 手貨物事務所, 運送部, 巡查派出所, 天主敎寺院, 北監理敎禮拜堂等…중략…이번에 新設한 스타디움이니十二萬名을 收容하고도 남는다 안에서는 蹴球도한다(편집부, 1932. 7. 9 : 7).

6) 일본 東京에 유학중이던 조선의 학생 武道人들은 무도의 보급 발전과 상무정신의 양양을 목적으로 1928년 5월 17일 당시 東京 神田에 있던 朝鮮基督教青年會館에 모여 東京留學生武道會를 조직하였다. 이 무도회의 주요 구성원으로는 평북의 金應權, 당시 권투로 이름을 날리던 黃乙秀 등이 있었으나 구성원의 대부분은 李景錫을 중심으로 한 유도인 들이었다. 그들은 창립총회에서 당시 日本의 中央大學 法學部 英法科에 재학 중이던 李景錫 유도 2단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이학래, 1990 : 156)라고 임석원, 조문기(2009 : 127)는 「이경석의 생애와 유도사상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世界各國으로부터 모여든 選手를 위하여 올림픽委員에서는 特히 百萬圓의 巨費를 投하여 올림픽村을 建設할 計劃으로...중략...大會會場에서 約十五分가량 걸리는 곳으로 太平洋을 一望之下에 바라볼수있는 언덕에세운다...중략...各國마다 部落을 別立하여 各國自國의 料理를 먹도록 設備되어 選手가 제힘껏 實力을發揮하도록 充分한 練習을 하기에 盡善, 眞美를 다하기로되어있다(편집부, 1931. 6. 30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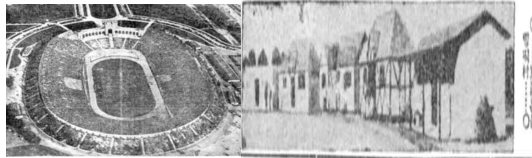


그림 1. 1932년 제10회 LA올림픽 주경기장 및 선수촌
출처 : 동아일보, 1932. 7. 9. 7면 / 1931. 5. 14. 7면

◇海外短信 올림픽行直航船 【東京廿日發傳通】 日本郵船은 明年七月三十日로부터 北美로스엔젤스에 開會할 올림픽을 앞두고 選手用으로서 太洋丸을六月三十日橫濱發七月八日羅府着, 觀衆團用으로 春陽丸을 七月十日□羅府에 直航시킬 예정이다(편집부, 1931. 12. 04 : 7).

<그림 1>에서 보듯이 LA가 건립한 주경기장은 웅장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주변 배후 시설도 전화국, 우체국, 은행, 잡화상, 안내소, 세탁소, 치안시설, 종교시설 등 세심하게 준비되었다. 각국 선수들이 留宿할 선수촌은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언덕위에 아기자기하게 연립하여 세계 원근각처(遠近各處)에서 모여든 선수들이 지구촌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게 보인다. 더하여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하여 각국이 스스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역시 이채롭다 하겠다.

다음으로 일본이 준비한 선편으로 보면 ‘日本郵船’ 즉 일본의 우편선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용으로 ‘太洋丸’으로 불리는 배를 지정하여 횡빈(橫濱) 다시 말해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1932년 6월30일에 출발

하여 라부(羅府) 영어로 LA에 동년 7월8일에 도착시킬 것이고 견학단용으로
는 따로이 ‘春陽丸’ 이라는 LA 직항선편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확
인한다.

‘춘양환’은 황을수가 귀로에 오를 때도 이용된다. “春陽丸十九日發無線
特電 어제無事히 로스엔젤리스를 떠나 지금歸途의 일본郵船 올림픽 汽船인
春陽丸에서 故國에 가까워오는것밤을 밝히었습니다. 九月九日 橫濱에 다올것
입니다(황을수, 1932. 8. 21 : 7).” 이제 황을수의 올림픽 활동에 대한 본격적
천착에 들어간다.

朝鮮이 나흔 天才의 拳鬪選手黃乙秀君은…중략…이번 壯途에 오를君的 압날이
더욱福 빌어진다. 朝鮮拳鬪俱樂部에서는 本社運動部와 協力하여 그동안黃乙秀君
後援會를組織해야가지고 一般有志의 入會와 同情을널리求한바…중략…現金二
伯七十圓八十錢에 達하였슴으로이것을 直視至急電報爲替로 東京의 黃乙秀君에게
送金하였다. 그리고 君의 特別한 懇望에 의하여 人蔘一斤과 령신환 十封을 再昨
廿七日에 航空便으로 發送하였다(편집부, 1932. 06. 30 : 9).

일본에서 벌어진 예선을 통과하여 올림픽 출전을 앞둔 황을수에게 동포들
의 성원이 답지하였다. 특히 조선권투구락부는 동아일보 운동부와 협력하여
황을수를 후원하는데 앞장섰다. 당시 모아진 성원을 보면 현금으로 270원80
전, 현물로 인삼 1근, 령신환⁷⁾(한방소화제) 10봉이다. 현금 외에도 특별히 부
탁하여 인삼을 채겨간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한민족의 원기회복에는 인삼
이 특효였나 보다.

현금은 ‘지금전보위채(至急電報爲替)’ 요즘의 전신환을 통해 동경에서 LA
로 갈 선편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황을수에게 보내었으며 현물은 신속한
전달을 위해 선편이 아닌 당시에는 일반적이라 할 수 없는 항공편을 통해 보
내주었다고 하니 韓민족 최초로 장도에 오르는 황을수에 대한 동포들의 기대

7) 급체(急滯)를 치료하며 급성이나 만성 위장질환(胃腸疾患)을 치료하는 처방(한국전
통지식)

가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당시에 성원을 보내준 많은 단체와 독지가들이 있었으나 지면상 한계로 일들 중 몇몇만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치호⁸⁾ 20원, 박영호⁹⁾ 10원, 김성수¹⁰⁾ 10원, 유억겸¹¹⁾ 1원, 조선권투구락부¹²⁾ 10원, 조선체육회¹³⁾ 5원, 경성일보¹⁴⁾ 40원, 조선신문사 40원, 동아일보 42원, 전형필¹⁵⁾ 인삼 1근(편집부, 1932. 06. 30 : 9)”

동포들의 십시일반 모아진 성원에 대하여 황을수는 전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謝電을 보냈고 동아일보는 이것을 기사화 했다.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돈과 藥과 人蔘은 다 잘바뻐습니다. 遠念하신 德分에 奮闘할 것을 後援會 여러분께 盟誓하나이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황을수, 1932. 7. 1 : 7)”

- 8) 정치가. 서재필 · 이상재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하였으며, 1910년 대한기독교청년회 연맹을 조직한 후 대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11년 105인사건으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두산백과).
- 9) 한말의 정치가. 급진개화파로 1884년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유대치를 중심으로 김옥균 · 홍영식 · 서광범 등 개화당 요인들과 결속, 정치적 혁신을 추구했다. 일본 세력을 이용하여 청나라의 간섭과 러시아의 침투를 방어하고자 했다(두산백과).
- 10) 한국의 정치가 · 교육자 · 언론인. 경성방직회사 창설, 《동아일보》 창간, 보성학교 인수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51년 2대 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사임하였다(두산백과).
- 11) 대한민국의 교육자로 중앙고보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연희전문 의 법학교수 및 연희전문 부교장을 거쳐 교장이 되었다. 기독교청년회 회장, 미군정의 문교부장, 대한체육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두산백과).
- 12) 朝鮮에 各種運動競技가 盛行한 가장男性的인 運動인 拳鬪를 좀더 徹底한獎勵를 하고져朝鮮拳鬪俱樂部를昨年부터斯界有志사이에發起되어(편집부, 1929. 9. 17 : 5)
- 13) 1920년 7월 13일 현 대한체육회의 전신인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었다. 창립이래 한국 현대 올림픽 운동과 체육스포츠 발전을 주도했던 조선체육회는 민족주의 사상을 토대로 일본인들이 조직했던 ‘조선체육협회’에 대응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창립한 단체였다(하남길 외 공저, 2008 : 344).
- 14) 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경성(서울)에서 발행된 일어신문(두산백과).
- 15) 한국의 교육가이자 문화재 수집가로 민족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힘썼으며 한남서림(翰南書林)을 지원 · 경영하며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보성(普成)고보를 인수하여 교주가 되었으며 광복 후, 보성중학교 교장과 문화재 보존위원을 역임하였다(두산백과).

모든 준비를 마친 황을수와 일본대표팀은 갈채 속에 출정을 하게 되니 그 경로는 동경을 출발 선수단 전용선인 태양환에 올라 요코하마에서 출항 하와이에 잠시 기착한 다음 대양을 가로질러 샌프란시스코에 입항 후 LA에 입성하는 것이다. 다음의 내용이 그 모습이다.

戸山學校軍樂隊를 先頭로 四列縱隊를 지어 數千의 民衆喚呼裡에…중략…東京驛을 向하얏는데 沿道는 萬歲 萬歲의 熱誠에 넘치는 市民의 부르짖과 四萬의 人波!…중략…동경역에 이르렀는데 역은…중략…명랑하게 唱和되는 올림픽 應援哥와 各大學校哥의 壯快한 리듬의 交錯이다(편집부, 1932. 6. 4 : 7).

東京橫濱間 沿道의 人波, 지붕위, 電柱의 말할 수 없는 人波! 그들은 모다 一行의 戰勝을 祝하는 人波 橫濱埠頭에 모인 數萬의 群衆이야말로 橫濱開港以來 처음이라합니다. …중략…午後三點. 定刻에 닻감은 우리의 배는 움직이기 시작…중략…人波에 시달린 나는 乗船…중략…感激, 이 緊張, 이 興奮 속에서 海上의 初夜는 밝히었습니다(황을수, 1932. 8. 14 : 6).

많은 이들의 환호작약 속에 ‘태양환’에 승선한 황을수는 LA로 가는 선상 위에서 계속하여 동정을 적은 서신을 보내왔고 동아일보의 이를 기사화하여 보도하였다. 다음에 그것들을 소개한다.

國際올림픽…중략…이大會에는 單純히 競技에우수한者만이 參加하는 것이 아니라 智, 德, 品性에 잇서서도 一般의 模範이 될만한 者라야만 參加…중략…배는 자꾸만 달립니다. 東으로 桑港을 향하여 이제 米國에 갓가워오는 이몸이언만…중략…나의 컨디션은 오버웍(練習過度)로 疲勞한 病에 걸리어…중략…이때 故國의 萬能選手 金正福君의 多情한 看病은…중략…永遠히 니줄수없는 나로서의 큰 追憶일 것입니다(동아일보, 1932. 8. 13 : 7).

疲困에 두다리 쪽 뺏고자든 새벽잠은 六時가 되기가 무섭게 石川마네저의 起床 소리에 깨칩니다. 六時半 B甲板에 모이어 約三十分間 로드웍과 若干體操를 마치고 八時에는 朝飯, 十二時에 點心, 午後二時부터는 正式 練習에 着手케되었

습니다.…중략…七月四日 이날 全部의 紀念寫眞이 잇섯고 필립핀 選手의 合同練習이 잇섯슴(황을수, 1932. 8. 14 : 6).



그림 2. 황을수의 尊影과 太洋丸

출처 : 동아일보, 1932. 8. 13. 7면 / 1932. 8. 17. 7면

‘요코하마항’에서의 열광을 뒤로하고 황을수가 승선한 태양환호는 미국 서부의 관문인 ‘桑港’ 즉 ‘샌프란시스코항’을 향해 나아갔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여정의 초반에서 황을수는 본인의 컨디션의 그간 많은 연습의 피로가 누적되어 좋지 않음을 밝히었다.

선상에서도 권투훈련은 계속되었다. 오전 6시 이시카와(石川) 사범의 기상 소리와 함께 시작된 오전 훈련은 6시30에 B갑판에 집결 30분간 구보와 체조를 하고 8시 조반, 12시 점심 오후 2시부터는 실전훈련 순으로 육지에서 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더하여 필립핀 선수들과의 합동연습도 이루어졌다하니 ‘太洋丸’ 호에는 일본대표선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필립핀 選手는…중략…이번 배에 陸上 一人, 拳闘二人, 監督醫師二人合하야 五名이 우리와 함께 가는길이다.…중략…朝飯 때에…중략…웨스링 선수, 柔道五段인 加瀬君이 없는 勇氣를 내어 食堂에 들어오기까지는조호트나 밥을 입에너치마자벼락가티 甲板을向하야 뛰어나가다가 急하게 너머지면서 그대로타하고말엇습니다. 點心때에서 約半數나 줄엇고자녀에는 來日 ‘호놀룰루’에 入港(황을수, 1932. 8. 16 : 7).

七月九日…중략…‘호놀룰루’ 港上陸의 準備 밧밧습니다. 橫濱을 떠난지 十餘日…중략…우리 一行의 上陸…중략…市長代理 ‘쁘람스’ 政務官의 簡單한 祝辭가 잇는 다음에 名勝地인 ‘누아누과리’에 달렸습니다.…중략…世界的奇勝地인

‘다이아몬드헤드’ (金剛石峯)로 갑습니다.…중략…구경이끝난뒤 ‘폰치폴’ 로 갑습니다.…중략…로스앤젤리스가 東北間으로 二千二百二十六哩이라고 쓰여잇습니다. 그러면 半以上 길을 온세음입니다(황을수, 1932. 8. 17 : 7).

황을수는 자신의 서신에서 ‘태양환’에 필리핀인 육상선수 1인, 권투선수 2인, 감독과 의사 각 1인씩 총 5명이 승선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태평양 횡단 중 선수들이 멀미에 시달렸음을 아울러 적시하였다. 요코하마를 출발하고 약 10일 후 일본선수단은 태평양 한가운데 섬인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도착 이후 호놀룰루 시장대리인 ‘쁘람스’ 정무관의 융숭한 환영을 받은 뒤 하와이의 여러 명승지를 구경하며 항행(航行)의 여독을 풀었다. 이때 관람한 장소는 누아누파리, 다이아몬드헤드, 폰치폴 등이다.

桑港에 上陸 七月十五日…중략…上陸하야 市廳으로 市長을 訪問하얏습니다.…중략…배에 돌아와 멀거니 甲板우에서 桑港의 夜景만을 바라볼때에 金門 公園의 휘황한불비치며…중략…늦잠들엇드타운으로 이날 아츰선잠을깨어 밥이라고 點口를 마쳤는데 별안간 뽀이가 應接室에 來客이라고 나에게 傳합니다. 가서보니 천만 뜻 맞게 白一圭씨라는 우리同胞한분입니다(황을수, 1932. 8. 19 : 7).

鮮鮮사람이 이긴것만을 알린다면 이以上 더바랄것이 무엇이며 또 더 깃븐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것힘것 싸워 우리朝鮮靑年의 活氣를 한번 덜쳐주십시오…중략…오랜만에맛나는 朝鮮同胞, 數萬里海外에서 談話한 朝鮮말 오직 感激하며 눈물이 아플 가리웁니다.…중략…‘레어베우드’에 가서 拳闘練習이 잇섯습니다. 練習場도 一流인것만지 廣壯합니다. 中央에 링이 두 개이며 韋스트웨이트 四個, 판칭뿔臺가 四個, 四方二十六尺 가량되는 體鏡이 二個이며 脫衣室에 個人의 열쇠가 따로 된 것이 五十餘室, 二十餘名團體 脫衣室所가 五六個이 잇고 모든 設備가 完全합니다. 個人脫衣室第一號室은 國際의選手가 오기前에는 문을 열지안는다합니다. 이러 타고들 하면서 그 號열쇠를 나를 주며 使用하라고하니 저의 황송함이어떡케스니까. 一號室, 이房을 前日까지 ‘짜꼬 뎀시’라는 것보다 세계의 拳闘王이라면 얼른알 그가 使用하얏다합니다(황을수, 1932. 8. 20 : 7).

7월 9일 호놀룰루에 입항이후 7월 15일 황을수와 태양환은 드디어 미국서부의 관문인 샌프란시스코에 입항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의 야경을 바라보며 異國의 異彩로움의 설레임을 느끼던 황을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갖게 되니 바로 후일 2010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로부터 애국지사로서 선정되는 백일규¹⁶⁾라는 함자(銜字)를 가진 동포의 방문이었다. 이때 애국지사 백일규는 황을수에게 잃어버린 나라 조선의 동포청년의 승리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말을 하였으니, 이역만리 타국에서 겨레를 만나 잃어버린 나라의 말로 격려의 말을 들은 황을수는 눈물을 흘리며 비장한 각오를 다지었다.

이에 황을수는 나라 잃은 민족의 승리를 세계의 제전인 올림픽에서 떨치리란 각오로 연습에 매진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레어베우드라’는 곳으로 가게 되니 그곳에서 그는 초일류의 미국 권투연습장을 보게 된다. 그 연습장에서 황을수가 올림픽 출전선수임을 알아본 현지 관계자들을 황을수를 당대의 최상급 선수가 와야 사용을 허락하는 1호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곳의 사용자의 면면을 보면 황을수가 사용하기 하루 전에는 ‘짜크 뎀시(Jack Dempsey)¹⁷⁾’라는 당대의 초일류 권투선수가 사용하였다고 한다.

저는…중략…羅府體育館에서 練習하고 있습니다…중략…이곳에게신 白衣同胞들이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極力을다하여 激勵하여 주는데도 다만感激할뿐입니다. 第

16) 백일규(1880.3.11. ~ 1962.5.31.), 2010년 12월 국가보훈처 선정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백일규 선생은 우연한 계기로 하와이로 이주, 이후 도미하여 샌프란시스코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미국 내 독립운동활동에 뛰어들었다. 대동보국회와 대한인국민회를 거치며 중책을 역임하였고 조선혁명당 미주총지부에서 활동하며 국외에서의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신문사 주필, 경제학 서적 출간 등 언론인과 학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재미교포들의 안위를 위해 헌신하였다(국가보훈처).

17) Jack Dempsey(1895.6.24. ~ 1983.5.31.), 미국의 프로권투 선수. 1919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어 100만 달러 경기의 주역으로서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으며 ‘메너사의 살인자’ 또는 ‘주먹의 영웅’이라 불렸다(두산백과).

二世의 영맨들도 每日 가티 電話 또는 일부러 自動車로 머나먼 “올림픽빌레지” 까지차쳐와서…중략…朝鮮飲食, 더욱 김치, 깍두기 등도 날마다…중략…在留同胞 여러분의 가정에서 갖다가 먹여줍니다. 이것을 먹을 적마다 우리의 짐은 무거워지는 것 가데요…중략…연습은 오늘까지로 끝막었습니다. 저의 練習相對는 白人의 職業選手인데 한번 練習시켜주는데 四十圓式이나 支拂합니다. 오늘은 기것으로끗치고 께임이 끗난 뒤에 자세히 올리기로 하겟습니다(황을수, 1932. 8 28 : 7).



그림 3. 재미조선동포 주최 황을수, 김은배, 권태하 환영회

출처 : 동아일보, 1932. 10. 1. 7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올림픽의 도시인 LA로 옮긴 황을수는 그곳에서도 연습에 정진하였다. 그는 LA체육관에서 연습의 소식을 전하며 현지 직업선수와 스파링연습에 회당 40원이나 지불한다며 그곳에서의 경비가 많이 소모됨을 걱정하였다. 앞에서 밝힌 동포들의 성금 270원 80전이 참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애국지사 백일규와의 조우와 더불어 LA에서도 황을수에 대한 거래의 성원은 끊이지 않았다. LA와 그 주변 원근각처에서 차량을 동원해 모여든 동포들은 조선청년의 승리를 기원하며 갖가지 조선음식 특히 김치, 깍두기 등을 장만해와 황을수의 원기를 북돋아주니 아마도 황을수는 그때 나라 잃은 민족의 이름을 세계에서 남기고자하는 결의에 찬 의기가 북받치었을 것이다.

【로스앤젤리스九일발전통】 제十회세계올림픽 대회의 권투라이트級 제一회전은 九일오후八시(조선시간十일 오후一시)부터 올림픽공회당에서 열은바 우리의지보, 黃乙秀군은 獨逸의장자이오 六척거한의 ‘카르츠’ 선수와 대전하야 능히 제一, 제二

라운드 互角의 접전을 하다가 제3라운드에 들어가 승부가 끝나지 안함으로 드디어 포인트만춘 ‘카르츠’ 선수가 判定으로 이긴 것이 심판으로부터 선언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의황을수군은 선전 선투 드디어 ‘나크아웃’ 을 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석패하였다.…중략…長身の 카君을 對敵하여 한때끔찍못하도록堂堂히互角의 戰을한 黃選手의 奪鬪는 滿場의 拍手를 바뻐다(편집부, 1932. 8. 12 : 7).

1932년 8월 9일, 유민(遺民)들의 恨을 해원(解冤)할 一戰을 위해 심신을 예리하게 버리며 준비를 마친 황을수에게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황을수는 6척 거구 독일 카르츠 선수와 대전을 펼치게 되니 양선수 총 3회전 경기에서 호각지세의 팽팽한 경기를 펼치었지만 승부가 나지 못하고 결국 판정까지 가게 돼서 독일선수가 판정승하게 되었다. 통한의 패배였지만 거구의 상대를 만나 팽팽한 경기를 펼친 황을수에게 현장의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위로해 주었다. 통쾌한 승리를 기대하였지만 석패한 황을수 선수는 사실 올림픽이 있기 몇 달 전 부상을 당하였다.

悲痛한 心境 病床의 黃乙秀…중략…最近東京에서 열린 第一, 第二次豫選에서 負傷을 입어…중략…病中の 몸으로…중략…最終豫選에서 快히 強敵을 물리치고 優勝하여 第十會 世界올림픽大會에…중략…出場케되었다.…중략…黃乙秀君은 練習中에 右肩骨과 右手를 負傷…중략…腰部도 無理한結果 허리까지負傷하였다.…중략…허리의病症은 껀입전보다도 배가하여 行步조차自由롭지못하였고 體重은 점점減하여지며 元氣조차없서짐에 어울려 他病症까지 병발하였다. 주치의 말에 의하면 運動을 무리한 때문에 발생한 『리차드병』이라하며 絶對安靜을 要한다고하여…중략…黃君의 心境이야 말로 悲痛하기가 比할곳없다(편집부, 1932. 6. 21 : 7).

올림픽 출전자를 가리는 치열한 예선전과 최종결정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입은 황을수의 부상은 간단하지가 않았다. 권투선수가 오른 어깨, 오른 손을 다치었으니 이는 새가 날개가 없음의 형상과 같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강훈련을 하던 황을수는 ‘리차드병¹⁸⁾’이라는 허리 부상까지 얻었

18) 리차드병 [Richard' s disease]1919년 미국의 리차드가 제5요추횡돌기(腰椎橫突起)의

다고 하니, 링에 오른 것 자체가 황을수에게는 승리인 것이었을지 모른다. 역사에는 가정은 없지만 이와 같은 부상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림픽에서 돌아와...중략...나에게 만흔 企待를 가지시든 海內同胞諸氏께 謝過를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붓을들어 通信이라고 드릴 勇氣조차업습니다. 무슨 面目으로 歸郷할가요, 생각이 아득합니다...중략...언제인가 大洋丸에서 米國가는길에 올린바와 가티 허리의 ‘오버웁’으로 적지안흔苦痛中이었으며 醫師의 말도 練習을 中止하라고 하얏으나 責任의 무거움을 어찌갠스니까羅府에 到着되면서부터는 監督과 싸우다시피하면서 練習을하얏답니다...중략...나의 背後에는 우리同胞게시다는 것을 切實히생각한 때문입니다...중략...올림픽條項 第一條目에 쓰여잇는 말과가티 世界의 올림픽은 이김에잇는것이아니라 잘싸우는데잇다는말과가티 나는 내힘껏, 내 힘以上잘싸웠다는것만을 말씀드리고 이로써오직 自慰를 삼으려하나이다. 九月四日 밤 東京宿舎에서(황을수, 1932. 9. 11 : 7).

올림픽에서 돌아온 황을수는 1932년 9월 11일 동경에 있던 거처에서 자신을 후원해주었던 동포들에게 서신을 띄어 올리니 동아일보가 이를 기사화했다.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 먼저 올림픽에서 승리하지 못해 동포들에게 면목이 없음을 밝히며 앞의 내용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신의 부상이 현지에서 진찰한 의사들도 훈련을 만류했을 정도로 심각했음을 밝히고 있다. 서신의 말미에는 올림픽 조항 제1항목을 언급하며 최선을 다해 잘 싸웠으니 후회는 남기지 않겠노라 함을 밝히고 있으니, 황을수의 그 마음 참으로 가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을 끝으로 본론을 맺고 결론에 들어가도록 한다.

기형이 요통의 원인인 것을 주장한 것에 비롯된다. 즉 제5요추횡돌기가 거대하게 되어 천골이나 장골과 관절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있으면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Ⅲ. 결론

일제강점기는 스포츠에서 민족적 우수성을 견주던 경향이 강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 시기 韓민족은 나라를 일제에 의해 잃어버리고 매우 암울하였던 시기였기에 한민족을 세계에 알릴 기회가 거의 없었다(임석원, 조문기, 2017 : 340).

그런 힘든 시기에 본고의 대상인 황을수는 권태하, 김은배와 함께 비록 태극기를 들 순 없었지만 1932년 제10회 LA올림픽에 참가하여 비록 나라는 잃었지만 민족은 아직 존재함의 흔적을 세계의 제전에 새길 수 있었으며 그때 조선의 遺民들의 많은 성원 또한 함께 하였음을 본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그와 같은 올림픽에서의 황을수의 권투활동은 그 혼자만의 영달을 위한 고군분투가 아니라 나라는 잃었지만 민족은 아직 숨 쉬고 있음을 세계의 알리기 위한 염원을 담은 민족적 도전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와 같은 논거의 결과들을 다음에 열거하며 본고를 마친다.

첫째, 황을수는 일본의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인한 조선민족의 배려차원이 아닌 당당하게 예선전을 걸쳐 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획득하였다.

둘째, 황을수의 올림픽 도전을 위해 당시 한반도의 有志들과 유력기관들은 많은 후원을 하였다.

셋째, 황을수는 요코하마를 출발 하와이 기착 샌프란시스코에 입항하는 긴 항해 중에 선발전에서 입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맹훈련을 하였다.

넷째, 미국에 도착해선 황을수는 현지 동포들의 열과 성을 당한 후원을 받았으며 특히 훗날 국가보훈처에 의해 애국지사로 추존되는 백일규를 만나 올림픽에서 민족적 자부심을 드높이라는 사명을 부여 받는다.

다섯째, 한민족 최초의 올림픽 권투경기에서 황을수는 거구의 독일선수와 호각을 벌이는 격전을 벌인 후 입상은 후일 1948년 한수안¹⁹⁾에게 미룬 채 당

19) 런던올림픽에 처음으로 대표선수를 파견하였다. 한국은 육상 역도 레슬링, 자전거, 축구, 농구 등 총 69명의 임원 및 선수를 파견하였으며, 그 중 권투 플라이급 한수안

시 滿場한 현지 관중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으며 귀로에 오른다.

참고문헌

『국사』

노병엽, 이익순(1997). 韓國복싱 八十年人物史. 서울 : 월드타임즈.

이학래(1990). 한국유도 발달사. 서울: 보경문화사.

임석원, 김대한(2014). 광복 전후 경성 경마장의 상황(狀況)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3(1), 1-9.

임석원, 조문기(2009). 이경석의 생애와 유도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 125-136.

임석원, 조문기(2017). 일제강점기 ‘복싱의 신’ 서정권의 삶. **한국웰니스학회지**, 12(4), 331-341.

임석원, 조문기(2017). 일제강점기 황을수의 권투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무예학회지**, 11(4), 1-14.

조문기, 임석원(2009). 일제강점기 조선연무관의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81-92.

편집부(1935). 三千里. 8월호 7권 7호. 삼천리사.

하남길 외 공저(2008).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진주 : 경상대학교 출판부.

하남길(2011). **체육사 신문**. 진주 : 경상대학교 출판부.

동아일보. 1929년 09월 17일.

동아일보. 1931년 04월 04일.

동아일보. 1931년 05월 14일.

동아일보. 1931년 06월 30일.

동아일보. 1932년 06월 04일.

동아일보. 1932년 06월 21일.

과 역도 미들급의 김성집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였다(하남길 외 공저, 2008 : 246).

동아일보. 1932년 07월 09일.

동아일보. 1932년 08월 12일.

동아일보. 1932년 10월 01일.

동아일보. 1932년 07월 01일.

동아일보. 1932년 08월 13일.

동아일보. 1932년 08월 14일.

동아일보. 1932년 08월 16일.

동아일보. 1932년 08월 17일.

동아일보. 1932년 08월 19일.

동아일보. 1932년 08월 20일.

동아일보. 1932년 08월 21일.

동아일보. 1932년 08월 28일.

동아일보. 1932년 09월 11일.

<http://www.koreantk.com>

<http://www.doopedia.co.kr>

<http://www.mpva.go.kr>

<https://terms.naver.com>

ABSTRACT

The 10th LA Olympics in letters of boxer Hwang Eul-su

Yim, Suk-Won(Daelim Univ.) · Cho, Moon-Gi(Ilga Found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achievements of the Boxer Hwang Eul-su, who the first Olympian of the Korea, and identified the early form of history of the Korean Olympics through his record. To address the goal, this author adopted the study method of reviewing literatures including newspaper, magazine, theses, and books, and grounded on that excavation above, this study has found following results. Hwang Eul-su competed as a boxer in the modern Olympics that Koreans took part in for the first time. His outcome did not involve any winning of a medal, but the time was harsh as we had the ethnic group but no nation, so the length of that product was just brief but the depth of it was absolutely profound.

Keyword : Boxer, Hwang Eul-su, Letter, The 10th LA Olympics

논문투고일 : 2019.12.29.

심사일 : 2020.01.10.

심사완료일 : 2020.01.30.